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부인과 함께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현지지도하시였다.

통일거리운동센터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상에 따라 일떠선 현대적인 대중운동센터이다.

연건축면적이 1만 3,749㎡인 통일거리운동센터는 건강운동실, 수중초음파실, 건강회복실, 탁구장, 청량음료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를 비롯한 61종에 138대의 각종 운동기재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릇하게 갖추어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통일거리운동센터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운동기재들의 구비정형과 배치상태, 리옹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1층과 2층에 전개된 건강운동실을 돌아보시면서 기재들의 특성이 어떤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여러 가지 운동기재들을 하나 하나 보시면서 대중운동센터답게 기재배치를 합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 물리치료방법을 비롯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3층 건강운동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층과 2층에 비해 잘 꾸렸다고 평가 하시였다.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들이 좋다고 하시면서 체력단련과 치료체육을 위해 근로자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청소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하루종일 방안에 앉아 일하는 사무원들이 통일거리운동센터에 찾이와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사업에 투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체의 각 부위별에 자극을 주는 현대적인 초음파설비들과 습식 및 진식한증, 사와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수중초음파실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이 운동과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봉사활동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잘 운영하여 이곳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체의 각 부위별에 자극을 주는 현대적인 초음파설비들과 습식 및 진식한증, 사와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는 수중초음파실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이 운동과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 봉사활동을 잘해야 한다고 지적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 25 경축연회에서하신연설중에서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랑될지는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오른 우리 조국의 위상은 바로 이날과 잇닿아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북조선의 새령도자 김정은원수가 목선을 타고 서남지역 장제도와 무도를 현지시찰한 기록영화와 세상에 공개되자 세계는 충격에 빠져버렸다. 신문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특집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만한 세계의 관심이 김정은원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적대세력들의 촉각이 북조선의 동향에 예민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식에 접한 이북의 민중은 물론이고 이남과 해외동포사회에서는 지금 『김정은열풍』이 세차게 일고 있다.

그날 파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8월의 장마속에 사나움이 감돌았다. 쏴하고 절썩거리는 파도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긴장하게 하였다.

전운이 감도는 서남지구 바다에 조그마한 목선 한 척이 파도를 헤아르고 있었다. 이 소박한 나무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가 타고계시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목선에는 승무원 몇 사람�이 같이 태고 있었다. 구관들파담소하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이다. 그 모습은 멀리에서 사내들은 서로에게 준다. 김정은원수께서 가진 것이다.

파도를 헤치며 장제도로 가는 사랑의 목선

에서 한달이 멀다하게 화약냄새가 풍기고 짐락전쟁연습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최전방 섬에서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찾아 김정은원수께서 가진 것이다. 김녕 그 이의 모습은 친아버지의 모습이었고 거룩한 령도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늘 웃고만 계시지 않으셨다. 섬에 올라 맞은편 적진을 바라보실 때 그이의 앙광에서는 펼펼 불이 일었다. 우리의 령도에 단 한발의 후한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격을 이어가려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강운동실을 돌아보시면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운동기재를 이용하여 체력단련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면 전문가들과

아내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지적 하시였다.

건강회복실에 들리시여서는 봉사원들

20원

마안산밀영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은 무겁고 아프셨다. 일제에게 부모형제들을 잃고 천산만악과 림해설원을 지나 유격대를 따라온 아이들의 정상은 너무도 가공했다. 옷을 걸쳤다고는 하지만 넉마나 걸레짝이나 매한 가지였고 얼굴들은 하나같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벌거숭이나 다름없는 아이들을 대하시는 수령님께서는 그때 암말로 자신의 수중에 있는 돈을 쓸 때라고 생각하셨다. 어머님께서 손끝에 피가 나도록 싶임을 하여 한푼두푼 힘겨웁게 번로력의 열매였고 림종을 앞두고 유산으로 남긴 20원이었다. 지금껏 그 돈을 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버렸다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것을 쓰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이것은 1936년 항일대전의 나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지 않으면 안될 경황이 때없이 생기곤했다. 자신의 호신부와도 같이 소중했고 가능하다면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의 표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돈이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 돈으로 험벗은 아이들에게 옷을 해입하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 금전이 없이는 도저히 뿐

나갈 수 없는 역경에 처했을 때만 쓰라고 당부하였고 또 장차 이보다 더 어

렵고 험한 고비가 있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번역히 알면서도 네해동안이나 간

수해온 20원을 아이들을 위해 내놓으셨다.

장시

친근하여라

김정은원수

박철

1

수천날
아니, 수만날을 모시고
우리 살아왔다 한들
이처럼이야 우리려
심장이 온넋이 반했으라

어제의 매혹에
오늘의 매혹이 더해지고
오늘의 매혹에
매일의 매혹이 합쳐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그처럼 한순간에
그처럼 일시에

온 나라의 마음
천만인민의 심정을 사로잡은
그 매혹은 어디서 오는것이더나

아침마다
신문을 쉬이 놓지 못하노라
밤이 깊어도
TV앞을 뜨지 못하노라
지면에 화면에 모신
그이 영상 우리르며

어쩌면 그리도
존안은 태양같이 빛나고
어쩌면 그리도
성품은 한집안의 어버이같이
인자하시고 소탈하실가

청진하고 기백넘친 그 모습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 걸음
감동은
감격은

아, 터지고 터져오르는 경탄
이여

마음은 12월의 그 나날에 선다
뜻밖에도 젊은 우리 장군님
그이의 령전앞에
얼어 굳어진대로 슬픔을 가지라
온 나라가 눈속에 호상을 서던
그때

비통하시여 통분하시여
누구보다 손수건 더 적시면서도
-인민의 편의를 보장하라
온 나라의 조의식장
한사람한사람 다 안다
언몸 따뜻이 녹여주신 원수님

그 가슴이
인민이 난생처음
안기여 뜨겁게 적셔드린 그 품이
우리려 간직한
눈물속의 매혹이었던가

매혹은 매혹을 낳았어라
설명절날
식탁에 앉은 학원의 원아들에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고 물어
보시며
그들의 친진한 대답도 들으시며
환하게 지으신 미소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같은 그 미소
어버이가 없는 인민에겐
어버이의 품같은 그 미소

그런 미소 피여울리는 심장은
얼마나 뜨거우랴
그런 미소를 짓는 령도자는
얼마나 자애로우랴
또 얼마나 온혜로우랴

우리 인민은 이 조선은
어제처럼 오늘도 래일도
운명을 길이 의탁할뿐
그 세월의 행복을 책임져주실분

천출위인을 맞이했나니

마치 그렇게 하면
가까이 더 가까이에서
우리르고 뵈울것만 같아
저쳐마다 TV화면앞에

다가앉던 마음들

장군님의 미소가
장군님의 품이
사무치게 그립던 우리
이제 무엇을 더 바란단 말인가

천겹만겹의 고난과 시련을 헤쳐
이 땅우에 강성부홍—
락원의 길 열어주신 장군님
그 순길만 있으면 그만인 우리

심신은 얼마나 든든했던가

장군님의 그 미소
장군님의 그 품
장군님의 그 순길을
김정은원수 그이 위인상에서

인민은 다시 보고 다시 암기고
다시 굳게 잡았나니

매혹이여

매혹이 저도 몰래 글리여
심취되는것이라면
김정은원수님 그이께
저도 모르게 글리는 마음

글리여 심취된 인민

하루하루가 그런 날들이었다
달과 달이 그런 달들이었다
말이 아니라
무쇠에도 새길 불같은 눈물로

가슴에 매혹이란 글발 새기는...

유희장구내
보도블로크사이에 돌아난 잡풀
그리도 아파 손수 뽑으실제
그 손 마음속으로 부여 잡고
인민이 쓸은 눈물—매혹이여

릉라도에 일떠서는 인민유희장
세찬 먼지바람 맞으시며
더 잘 더 훌륭히 꾸리자고
손수 도안까지 그려주실제
다시 쓸은 눈물—매혹이여

마를새 없었노라
날이 갈수록 더 진하게 솟았
노라
최고사령관께 전사가
령도자께 인민이
직함이 아니라 뜻과 정에 글리여

그 매혹의 눈물
군부대율리리며에서
환호를 울리는 너인들을 불러
한식출처럼 찍으신

뜻깊은 기념사진에도 담겨져있고
식수절의 그 봄날
군인들과 함께 구덩이를 파시고
땀흘려 심으신 성성한 나무에도
아이들이 뛰놀다 넘어지면
상활수 있다고
운동장에 입혀주신 고무깔판에
도...

하늘아래 이 땅우에
오로지 인민만이 있는듯
헤아려 세심하시고
배풀어 통이 크신 그이
인민사랑 인민존중을
천품으로 지니신 령도자

왜 그리도 목이 꽉 메웠더나
수령님 탄생 100돐 그 태양절날
력사의 단상 승리의 단상
김일성광장 주석단에서 울려
펴진
그이의 첫 육성연설 들으며

너무도 크나큰 충격
너무도 벅차던 환희
차분하고 부드럽고 우렁우렁한
그이 음성 새겨안으며
홍분으로 고쾌치던 심장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
으로!

거룩한 손길 높이 드신
그이를 우러러
평창에 터쳐오른 환호성
꽃다발로 파도친 인민의 매혹이여
총대로 위슬렌 장병들의 매혹이여

그 시각 북남이 따로 없었더라
얼마나 출중하신가
얼마나 틈틈하신가
얼마나 당당하신가
남녘겨레도 해외동포들도

함께 경청하며 함께 경모했노라

나라의 통일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그가 누구든 손잡고나갈것이라고
책임과 인내성 그 모든 노력
통일을 위해 기울일것이라고...

눈앞이 확 열리는 연설—
반통일의 광풍에 타들던 가슴들
속속 적시는 생명수인듯
구절구절 되새기며
남녘의 인민들 눈물로 터친 그
진정

-그분은 공개석상에서의
첫 연설을 통해
선군정치를 굳게 이어가실
김정은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날 그 시각은
광장의 주석단이 아니라
활화산처럼 분출한
온 겨례의 매혹의 단상에
경애하는 원수님 서계신
역사의 날 령사의 시각

격동의 그 나날
차디찬 눈이 덮였던 강산에
화창하게 피어난 봄을 안고

그 매혹의 눈물
군부대율리리며에서
환호를 울리는 너인들을 불러
한식출처럼 찍으신

장군님의 해빛 속에
영원히 살게 된 우리 인민
웃음을 다시 찾았노라

우리 굳게 믿었노라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아버지 장군님 한평생을 바쳐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
그이 현실로 꽂여주시리라고

오, 매혹이여
그이 먼저 인민에게
자신의 심장을 다 주시여
격정에 겨워 드리는
천만군민의 심장이여

그 매혹의 불길은
그 어떤 폭풍우도 끌수 없고
총칼로도 꺾을수 없고
천만년세월이 훌러도 지지 않고
세차게 더 세차게 타오르리라

하늘이 내시었던가
백두산이 반드시였던가
펼치면 하늘이 되는 매혹우에
쌓으면 백두산이 되는 매혹우에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인민의 령도자로 거룩하시다

한없이 매혹적인 분
무한히 경애하는 분
뵈오면 빼울수록 가슴에
끓는 쇠처럼
사품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것은 숭배심이노라
매혹이 낳고낳는
경애가 터치고 터치는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열렬한

묻노니 사람들이여
인간의 숭배는 무엇이던가?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우리 존경하고
높이 받드는 것이 숭배라면

심장에 붉은 피로 울솟음치는
인민의 숭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그이를 믿고 따르고
우리 존경하며 받드는 것!

존경하며 믿노라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내 나라
언제나 화목하게 살수 있는 것
아버지가 계셔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한분 어버이로

따르며 믿드노라
시련을 딛고 나가는 이 땅
참을 빛낼 수 있는 것이
령도자를 모셔야 하는 것이라면
그 한분 령도자로

쏟아져내리는 불멸
수수한 밀짚모자로 가리고
현지지도의 길 걸으시는 모습은
한평생 사랑을 주시던

그 눈물 그 목매임은
온 나라가 추억깊은 네타이
마음속에 다시 매보며
아이들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한없는 애정인듯
붉은 네타이 정 히 매시고
누구도 생각 못한 축하연설
그이 정을 담아 하실 때
평평 쏟아져내린 눈물, 눈물

그 눈물 그 목매임은
온 나라가 추억깊은 네타이
마음속에 다시 매보며
아이들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그는 인민의 편의를 최우
선, 절대 시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
을 심장에 새기고 참판과 휴
식에 편리하게 관람차리용을
짜고들며 곳곳에 휴식장소도
더 잘 꾸리고 원림목화사업
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은 끝났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
자들은 종합해설을 듣고 민
속공원을 돌아보았다.

수령님—아버지의 그 모습!

이른아침에 찾아오시여
점심식사마저 미루고
종업원식당까지 돌아보시는 현
신은

한평생 정을 다하신

장군님—령도자의 그 현신!

아, 절세위인들이 한평생 휘날
려온
인민사랑의 기록에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
하라

그 좌우명 새겨
한생의 하늘로 펼쳐 드신
김정은원수

그 해밝은 하늘에서 내려내리는
사랑의 봄비에
온몸을 흙뻑 적시는 인민
숭배심은 참 못드는

바다인가 파도인가 해일이던 가

들여보라
펴져가는 아침해 살처럼
새날이 밝으면
새롭게 전해지고 전해지는
그이에 대한 이야기

일터에선 로동자, 농민들이
마을에선 너인들과 로인들이
학교에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기쁨속에 울렁이며 나누는
그이 인민사랑의 이야기—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제일 좋은 총엔
로동자세대를 들게 하셨다고
어느 한 일군은

인민의 리익을 외면해
눈물을 나게 비판을 받았다고

신문에 실린 글이 아니건만
누구나 진실로 믿노라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사랑만을 수놓아가시는 분
그이께 선 그렇게 하시리라

아, 날마다 걸음마다 수놓는
인민사랑의 전설로
벌써 민심의 한복판에서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다함없는 경의 받으시는 그이

그 경의에 경의가
그 존경에 존경이
천만가슴에 또다시 합쳐진
경이로운 날이여
오, 그날은 소년단원들의 명절
6.6절

미래에 대한 한없는 애정인듯
붉은 네타이 정 히 매시고
누구도 생각 못한 축하연설
그이 정을 담아 하실 때
평평 쏟아져내린 눈물, 눈물

그 눈물 그 목매임은
온 나라가 추억깊은 네타이
마음속에 다시 매보며
아이들에 대한 후대들에 대한

첨예한 대결로 침침하던 하늘에
회망의 밝은 태양 솟았다!

그이께 드린 숭배의 갈채!

말해보자

동서고금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령도자가

우리의 김정은원수님처럼

령도의 첫걸음 첫자옥부터

이런 숭배받은 데 있다

인심의 격양

폭발하는 민심

북남삼천리 천지간에 가득하고

이역만리에도 차넘치는

김정은열풍 민족의 숭배심이여

그이는 선대수령들의 뜻을 받
들어
통일을 이루하시고
민족의 강대성을 펼치실분이시
다!

인심의 격양

폭발하는 민심

북남삼천리 천지간에 가득하고

우리 인민 우리 거례의

생의 활력이며 삶의 기쁨

북남삼천리가 하나되어

해외동포들이 한마음되어

심장을 불태워가는 이 숭배는

민족의 휘황한 폐일이며

안겨 살 통일강성조국

최근 공화국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출판물 《조선식물도감》을 만들어 내놓았다. 겨레에게 우리 나라의 식물을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심어주는 민족의 귀중한 재부 《조선식물도감》, 그것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당시 평양의 학대학

이루지

1946년 7월, 마구 접어 삼킬듯 길길이 솟구치는 동해의 창파를 헤아르며 독도로 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포항을 떠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속에는 식물학자였던 심학진 선생도 속해 있었다. 심학진 선생은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식물학적 견지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 독도에서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고유한 식물들을 채집하여 표본까지 만든 그는 환희에 넘쳤다. 그도 그럴 것이 독도의 식물자원에 대한 자료가 그가 접두하고 있던 《조선식물도감》에서 중요한 품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조선식물도감》을

약학부장 겸 과학원 의학연구소 연구사였던 심학진 선생은 의해 서였다. 재능 있는 한 과학자의 애국의 넓파 열정의 산물인 《조선식물도감》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가.

못한 꿈



심학진 선생

집필하는 것은 심학진 선생이 오래전부터 바라던 꿈이였다. 그의 눈앞으로는 《조선식물도감》 집필을 위해 바쳐온 나날들이 동해의 푸른 물결마냥 흘러갔다....

1912년 9월 함경북도 성진군(당시)에서 태어난 심학진은 어려서부터 식물재집에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이 나라의 산천초목을 무척 사랑하였다.

식물학을 연구해보려는 꿈

은 남달리 커으나 나라없던 그 세월엔 한갓 허황한 공상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경성제1고등보통학교와 서울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으로 대학과정안을 마치고 돌아왔으나 조선의 식물을 연구해보려는 꿈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었다.

망국노의 설움속에 서울로 돌아와 경성약학전문학교 생약학 교원자리를 얻었으나 조선 학생들에게 일본의 식물을 가르쳐야만 했다. 끊어오르는 민족적의 분을 참을 수록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 북부에 부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일찍부터 백두산을 주름잡으며 삼도에 적을 쥐락펴락하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가시지거의 전설을 흥분속에 전해들으면 잠 못들던 그였다. 1930년대 후반기에는 일제의 민족어 말살책동을 반대하여 조선어 학회에 망라되어 조선 말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우리 나라의 식물 이름을 고유한 조선말로 표기한 《조선식물학명집》도 그 나날 그가 저술한 것이었다. 하기에 심학진 선생은 미

도 《조선식물도감》 집필을 위해 서였다....

독도에 대한 식물조사를 마치고 물로 돌아왔으나 미제의 비호밀에 친일파, 미국 노들이 살판치는 남조선 현실은 그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조선식물도감》 집필은 고사하고 그는 몸담고 있던 서울약학대학 교단에 서마저 쫓겨나 한지를 해매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의와 양심, 애국의 싹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반인민적 사회에 대한 저주가 커갈 수록 그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공화국 북부의 위인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속에 살아온 참으로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제가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인민의 새세상을 찾아 결단코 복행길에 올랐다.

그 품에 안기였기에

제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 시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당시 평양의 학대학 약학부 학부장 겸 생약학 강좌 강좌장으로 간도 멈추지 않았다. 하여 김일성장군은 도봉성, 임록 대성생들과 함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삼천리 강도의 식물과 약초자원을 종합체계화한 《조선식물도감》(1, 2, 3)을 만들어 위대한 전시 품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며 조국과 민민을 위해 그들이 이루고자 한 흔적을 높이 평가해 주시였다. 절세위인의 분에 넘친 치하를 받은 복받은 사람들은 심학진 선생의 자녀들인 심윤경, 심윤주는 경직의 눈물로 두불을 적시였다....

오늘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을 찾는 해외동포들은 한 학자의 애국의 심흔이 자자구구 숨배여 있는 색 날은 《조선식물도감》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뚫기지 못한다.

세월은 모든 것에 망각의 이끼를 씌운다고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값 있게 산 사람들의 인생은 세월의 흐름과 인연없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주체사상 탐을 관하는 재증동 모듈

평양에는 사시절 따스한 《봄바람》 만이 분다면 서울에는 차디찬 《칼바람》이 분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 언론계에서 북파남의 실상을 대비하여 내린 평이다. 뜻은 평가하고 생각한다.

일마전 평양을 방문하면서 나는 이 말이 관객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나는 3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하였다. 유품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평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직후만 해도 《북봉피설》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던 서방이 이제 와서는 《새 정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저들 스스로 자신 한 것은 바로 평양에 인민이 바라는 정체가 실시되고 있거니와이다.

봄바람은 스스로 불지 않는다. 원천이 있기 마련이다. 평양의 봄바람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체에 의한 것이다.

지난 4월 김일성광장에서 조국인민들이 다시는 허리에 부리며 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나는 이민위천의 화신이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을 보고 나는 가슴이 통풀했다.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이런 금의 유혹지에 돈 있는 사람들만이 올수 있다. 하루 끼니를 예우기도 힘들어 하는 실업자들, 하늘을 지붕삼아 살아가는 로숙자들을 비롯한 평百姓들에게는 그럼 땅에 불파하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평범한 사람들을 누구나 찾아와 즐기고 있다.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육안으로 직접 느끼게 하는 현실이었다.

급에 판에 들려 관리일 군의 말을 들어보니 곱등

국가적인 큰 잔치를 베풀도록 하시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16살의 어린 나아이로 중국땅에서 조선전선으로 달려나왔던 나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는 후대들뿐아니라 전쟁로병들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품에 안아 험육의 정을 부어 주시는 인민의 어버이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하기에 평양의 봄바람은 절세위인께서 일으키시는 사랑의 봄바람인 것이다. 해외동포인 나도 어머니조국에 와서 따스한 봄바람에 심취되어 즐거운 나날을 보내었다. 정말 마음껏 취하고 영원히 맛고 싶은 평양의 봄바람이다. 내 비록 몸은 늙었지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궁지를 안고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여생을 깡그리 바쳐나가겠다.

황영두(중국 심양시에 살고 있는 동포)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나날이 푸르리 설레이는 청춘숲과 름음우거지고 백화만발한 인민의 대공원, 우리 나라 식물자원의 죽도인 중앙식물원이 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잇닿은 수목원으로부터 시작하여 푸른 숲의 바다가 펼쳐졌다. 높이 솟은 소문봉에서 내려다보면 합장교로부터 산신지구 일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중앙식물원 전경이 거대한 화폭으로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식물원건설을 나라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한 새 조국건설의 중요문제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주체 48(1959)년 4월에 창립된 중앙식물원은 오늘 연 570정보의 부지면적에 5 600여종의 식물을 가지고 있다. 각 도 식물원들과 지방의 여러곳에 분원(삼지연 식물원, 오가산식물원, 용진식물원)과 시험장을 가진 중앙식물원은 세계적 규모의 식물원이다.

우리 중앙식물원은 선물식물, 선물파수구, 식물분류구, 식물생태구, 식용열매나무구, 풍로순화구, 장미원, 화초원, 약초원, 수목원 등으로 나날에도 식물자원조사사업을

조직해주시고 순수 양묘기지도 마련하여 주시였으며 나무 모와 나무씨 까지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에 우리 가슴은 뜨거웠다.

하여 전후 초연이 채 가서 지기도 전에 조국의 산들에 새로운 나무모들이 줄줄이 죽어온 나무들이 펼쳐지고 새로 일어서는 거리에 푸른 가로수가 설레어게 되었다.

주체 48(1959)년 4월에 창립된 중앙식물원은 오늘 연 570정보의 부지면적에 5 600여종의 식물을 가지고 있다. 각 도 식물원들과 지방의 여러곳에 분원(삼지연 식물원, 오가산식물원, 용진식물원)과 시험장을 가진 중앙식물원은 세계적 규모의 식물원이다.

우리 중앙식물원은 선물식물, 선물파수구, 식물분류구, 식물생태구, 식용열매나무구, 풍로순화구, 장미원, 화초원, 약초원, 수목원 등 1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동 1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동장선생의 이야기를 듣으며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그 온한 향기 넘치는 식물원구 내길을 따라 식물박물관으로 향하는데 한눈에 다 담기 어려운 장미원이 펼쳐졌다. 사철장미, 불길장미를 비롯한 80여종의 장미가 있다.

장미원은 강성국가의 새 100년대에 들어선 첫해인 올해를 축복해서인가 류달리 회한한 장관을 펼치였다.

지난 6월에는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에 참가한 나아리 노년단대표들도 만발한 장미원을 비롯한 식물원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즐거웠다고 한다.

우리는 식물분류구도 돌아보았다.

《식물분류구는 우리 나라 식물을 학문체계에 의하여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식물의 진화발전에 대한 지식과 쓸모를 알려주어 대자연 개조의 원대한 품질을 꽂고 나아리 식물자원을 애호관리하도록 애국심을 키워주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분류구도 돌아보았다.

《이 식물은 세계적으로 1속 1종식물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미산나무입니다. 충북도 진천군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피란에도 이 군락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꽃바다, 푸르러 설레이는 숲.

마치도 식물원전체가 하나의 아름답고 거대한 꽃바구니처럼 생겼다. 살아숨쉬며 날마다 청청 푸르러지는 조화로운 예술작품이다.

얼마나 마음 훔듯한가.

소리높은 나무들이 푸른 하늘을 가리운 수림속에 들어섰다.

전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푸르름이 기운차게 솟구치는 청신하고 수려한 푸른 한껏 심그러웠다.

그윽한 향기가 넘치는 숲, 향나무金币이다. 향나무金币은 바람에 넘실대는 향기의 바다였다.

여기서 중앙식물원의 물이 대단히 크다. 조국땅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산림수종들과 도시록화용 원림수종들을 위주로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진귀한 수종들도 포함한 하나님의 대식물박물관, 종합적인 식물원종장이 바로 중앙식물원이다.

인민생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없거나 부족한 경제식물, 원림식물을 도입, 순화시키기 데 이르렀다.

중앙식물원은 주체 101년이 되는 올해에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수십 리 구내길이 번듯하게 새로 포장되고 매개 구획들이 새롭게 꾸려졌다.

나날이 젊어지는 청춘숲, 오늘에 가꿔진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는 곳, 조국이 젊어지는 곳이었다.

본사기자 박 단희



맑은 세상, 암흑세상

- 주택문제로 본 북과 남 -

언론들이 전한 《실업대란,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록금대란, 구제대란의 탄핵》 중에서 서민을 가장 울리는 《전세대란》만을 보자.

남조선의 《폐신문》 2011년 1월 20일호의 《뛰는 《전세대란》, 기는 《정부대책》》이라는 글에서는 이렇게 한탄하였다.

서울에서만 2만명이 상이 비닐집, 쪽방, 짐함 등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이 메어 말하는 그들을 보니 남조선 어느

한 출판물에서 본 글의 내용이 떠오른다.

서울에서만 2만명이 상이 비닐집, 쪽방, 짐함 등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이 메어 말하는 그들을 보니 남조선 어느

한 출판물에서 본 글의 내용이 떠오른다.

《혹한파 폭설, 구제역과 조류독감, 물가폭탄에 이어 전세값폭등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서민정책의 행방은 묘연하다.

년초부터 전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값은 2009년 3월부터 23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세대란》은 집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속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단지 거주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빈부를 극단적으로 갈라놓는 사회적 문제로 커져가고 있다....

남조선에서 1% 강부자를 위한 《정권》은 99%의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북에서 평범한 인민들이 세월과 더불어 더 흙을 헤우는 《아빠트탈출족》, 아빠트대신 전세가 높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아빠트탈출족》,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 치솟자 린근지역으로 이사하는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대란》은 집없는 서민들을 더욱 슬픔속에 몰고 있다.

본사기자



창전거리의 새집을 받은 공화국의 주민(←)과 집이 없어 한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조선주민(↑)

경제 강국건설을 주동하는 과학기술성과들

* 제 12 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 진행 *

제국주의 반동들의 고립 암살책 등속에서도 새 세기 산업 혁명의 불길 높이 경제 강국 건설을 힘 있게 다가쳐나가는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은 내외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지식 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 과학기술의 위력을 통해 주체의 강성 국가를 보관 듯이 건설해 가는 공화국의 과학기술 중심으로 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얼마 전에 진행된 제 12 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에서 뚜렷이 증시되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핵심 기초기술, 응용과학기술 등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 적극 기여 할 수 있는 1 100여 건의 우수한 발명 및 새 기술성과자료들이 실물과 모형, 도해, CD 등의 형태로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전람회장을 찾은 우리는 류철호 발명 총국 총장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된 내용들을 돌아보았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새 세기 산업 혁명의 불길, 핵심 기초기술을 세차게 지펴 올리는 과정에 이룩된 연구 성과들이었다. CNC 복합 종합 가공반, 가공 중심반, CNC 구성 104~250형 선반, 400kW 저열 압축기, 5축 동시 조종 CNC 타빈 날개 가공반, 브라보드 생

산 공정의 합유 생 산체계, 15 000m³/h 산소 분리 기제 도입 등 첨단 연구 성과들은 참관자들의 기습을 궁지로 부풀게 했다.

국가 과학원 생물 과학 분원에서 내놓은 최종 분화된 체 세포를 다능 성형 기세포로 전환하는 방법도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농활원 고분 자 폴리 페리드 주사약을 새롭게 개발한 연구 성과도 자랑 할 했지만 두단 오리 풍차, 신의 주단 풍차를 비롯한 가금 공장들에서의 전반적 생산 공정의 컴퓨터화, 무인화를 실현하고 나노 재료와 오존에 의한 무균화와 소독, 절

병진 단체를 도입한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도 경제적 실익을 더해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된 내용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 우리는 원료, 연료, 에너지 기기의 확보와 그 효과적인 리용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전시된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김책 공업 종합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내놓은 막강 토신

광공정, 반도체 대 출자 소자

재생 기술, 고효율 풍력 발전

기, 태양 전지 청원 등을 비롯

해 낸다면 우수한 신심을 더욱 굽게 했다.

이번 전람회에는 인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솔모임

연구 성과들도 많이 전시

되며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서방 나라들에서 인기를 끄는 두부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서방 나라들에서 두부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 두부가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식료품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고려 시기에서 벌써 여러 가지 두부 요리들이 이용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리조시기에는 명문가에 시집을 가는 처녀는 응당 장파 김치 담그는 법은 물론 두부 만드는 법 33 가지를 배워야만 했다고 한다.

두부는 새끼로 끓어서 들고 다닐 만큼 단단한 막두부, 처녀의 고운 손이 아니고는 문드려진다는 연두부, 콩죽을 끓일 때 약간 태워서 탄내를 내는 탄두부, 굳어지기 전에 먹는 순두부, 명주로 쌈에 먹는 비단두부, 식혀서 먹는 곤두부, 기름에 튀겨 먹는 유두부, 얼구어서 먹는 언두부 등 그 종류와 이름도 해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두부는 지방의 이름을 달아 정선 두부, 초당 두부, 만월 두부, 향림 두부 등으로 불리우며 첨가되는 부재료의 이름을 달아 잣두부, 황기 두부, 솔잎 두부, 겸은 콩 두부, 아채 두부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일본은 임진 조국 전쟁 때 포로로 끌어간 박호인이라는 사람에게서 두부 제조법을 알았다고 한다. 고단 백질 식품인 콩이 전쟁의 중요한 물자로 된 결과 그 많던 전통 두부 기술이 널리 알려지지 못

하고 순두부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순두부는 굽히기 전의 두부인 순두부, 배에 써서 굽힌 베두부, 콩물을 무명자루에 넣어 써서 굽힌 무명두부로 구분된다.

두부는 그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치즈를 좋아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 두부의 부드러운 맛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사실 두부는 겨울철에도 영양 보충이 충분한 완전식료품이라고 볼 수 있다. 두부는 체내의 신진 대사와 성장 발육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칼시움, 철분 등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식료품으로서 소화률이 콩(65%)보다 훨씬 높은 95%나 되면서도 열량은 낮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더 많은 교훈을 찾으려고

어머니: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교훈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아들: 그건 나도 알

아요.

어머니: 그런데 넌 왜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

자고 그래요.

어머니: 그때 네 계

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고

치지 못하느냐?

아들: 교훈을 더 많이 찾